



장수 계남면 이두영씨, 대표경로당에 텔레비전 기증

장수군 계남면(면장 신영수)은 울평마을 이두영(89)씨가 대표경로당에 8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두영씨는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경로당 텔레비전이 노후화 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해 기증하게 됐다"며 "경로당 회원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편안한 여가활동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영근 계남면 노인회장은 "계남면 노인복지회 위해 기증을 해준 이두영씨에게 감사드린다"며 "기증한 텔레비전은 회원분들과 함께 소중히 잘 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시 금동, 취약계층에 식빵·딸기잼 전달

남원시 금동사무소(동장 윤용환)는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 발굴에 나서는 등 틈새 없는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달 31일 한부모, 수급자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식빵과 딸기잼이 담긴 봉투가 영양 간식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금년 특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관내 딸기 농가(대표 이경석)에서 딸기를 후원하고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잼 제조를 지원했다.

간식 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주민은 "심신이 지쳐있는 이 시기에 생각하지 못한 간식 선물을 받으니 힘나고 기분이 좋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익사 위험 지적장애인 신속 구조

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 상동지구대(대장 권기홍)는 내장저수지에서 저체온증으로 익사 위험이 있는 지적장애인을 세밀한 수색으로 신속하게 구조했다.

상동지구대 문성식 경위는 지난달 30일 20:30경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이 퇴근 후 귀가치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후대폰 위치 추적결과 내장산 저수지 주변으로 확인,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 소방·여정수사팀 등 가용경력 총 동원, 면밀한 수색으로 신고접수 후 2시간여만에 내장저수지 물 속에 몸이 빠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자칫 사망 위험이 있던 지적장애인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해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중심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남원시-내전북지역본부, 공동육아나눔터 무상임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는 지난달 31일 내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와 중앙하이츠아파트 입주인 대표회의(입주민 대표 강대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금동(2) 휴먼시아 아파트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과 향교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내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 조성을 위한 공간 무상임대 사용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남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해왔다.

특히 남원시는 지난 2019년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2019)을 노암동 한신아파트에 조성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부영1차 아파트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개소하고 베이비 마사지, 유아발레, 요리교실, 과학놀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품앗이 활동 등을 상시 운영해 육아를 둔 엄마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원주 시장은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 가까이에 공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특별조사자 비대면 직무교육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달 31일 화재안전정보조사반 6명에 대해 역량향상 비대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소방특별조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인 응대방법 ▲주요 관계법령 및 개정사항 안내 ▲위법사항 조치방법 ▲육내소화전 및 포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점검과 작동 방법 등이다. 박덕규 서장은 “특별조사반 업무능력 향상이 화재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야영장 전문기관 합동 안전점검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지난달 30일 ~ 31일, 전문기관과 함께 덕유대야영장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과 함께 본격적으로 야영장 이용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장수소방서·한국전력간전공사 전북지역본부·덕유산사무소 합동으로 소방·전기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덕유대야영장은 96만㎡/29만평의 면적에 자동차 영지 71동, 일반영지 426동을 수용할 수 있고, 체류형 시설인 통나무집·황토집 7동, 캐러반 15동, 산막 등 기타 시설 10동을 갖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야영장으로, 구천동 계곡에 근접해 있어 사계절 많은 야영객이 이용하고 있다.

강성민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특히,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만큼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소 기자

임실군 신덕면, 옥녀동천 및 제목천 제방길 꽃 돌레길 조성

신덕면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면을 가로지르는 옥녀동천과 제목천 제방길 6.4km를 꽃 돌레길로 조성하기로 했다.

제방 지장목 제거를 시작으로 제초작업과 함께 지난 29일 꽃씨를 파종했다.

꽃 돌레길 구간을 마을주민과 새마을부녀회 및 생활개선회에 조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함은 물론, 마을주민 및 사회단체 구성원들의 애함심 고취와 단체의 결집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제방 꽃 돌레길은 천일국, 사스타데이지, 부드베기아, 에케네시아, 백일홍,코스모스 등 총 6종의 품종을 파종했다.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꽃들의 개화 시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꽃이 핍으로써 하천과 제방, 그리고 농경지와 잘 어울리는 꽃들을 오랫동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레길 매니아와 라이더분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반마을 순경속 새마을부녀회장은 “마을주민들이 함께 제방길에 잡초를 제거하고 꽃씨를 뿌리면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할 하시면서 일을 하시



고 활짝 핀 꽃길을 걷는 것을 상상하면 랜서리 기분이 좋 아진다”고 말했다. 김명진 신덕면장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꽃길을 조성하고 조성된 꽃길을 걸으면서 행복해지는 모습을 그리며 함께 일하고 있다”며 “이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함께하는 즐거움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임실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소방서, 소방특별조사자 디지털 비대면 교육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지난달 31일 진안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ZOOM 기반 디지털 비대면 소방특별조사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 확산됨에 따라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였고, 전라북도 13개 소방서에 화재안전정보조사반으로 지정된 조사반(43개반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등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사항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 각종 소방시설의 작동 방법 및 점검요령에 관한 것이다.

한편 진안소방서는 지난 2월 10일 개칭한 이후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도통지구대, 아동안전지킴이 간담회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대장 박흥규)는 지난달 31일,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과 놀이터, 공원 등에서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동지킴이에 대한 활동점검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동안전 지킴이는 하교시간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도통초, 중앙초 등 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유괴, 협박, 폭행 등 아동범죄 예방에 힘쓰며 아동이 다친 경우부상정도를 파악해 119신고 및 경찰과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도통지구대 아동지킴이 이모씨는 아이들이 뛰어 놀다 다칠 것을 우려해 항상 구급약품을 가지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은 아이를 치료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아동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